

#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 민원 접수 1000건 돌파

### 접수 민원 95.9% 처리 완료...소통창구로 호응

###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면 신속 답변"

영암군은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 2022년 8월 개통된 이후 10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바로처리' 발음을 숫자로 표현한 8572를 전화번호로 삼은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 '010-9881-8572'는 생활 속 불편 민원에서부터 고충, 정책 제안 등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문자로 손쉽게 신청·해결하도록 돕는 민원서비스다.

그동안 접수된 분야별 민원은 생활민원 432건, 정주여건 272건, 문화관광 102건, 일반행정 114건, 기타 80건 등이다.

영암군은 이 중 95.9%가 넘는 959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접수된 민원의 87%를 3일 이내에 처리했다.

쉽고 빠른 민원 처리에 대한 영암군민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소통폰 고객만족도 평가

에서 군민 종합만족도가 86.7점이었다.

세부적으로 신속성 부문이 9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절성 89.4점, 전반적 만족도 84.9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고, 담당자의 피드백이 빠르고, 바로 해결된다는 긍정 의견이 많았다.

동시에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이 휴대폰으로 손쉽게 민원을 전달할 수 있어 영암군민과 영암군을 연결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았다.

최근에는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응원 메시지가 늘어나는 등 민원서비스 채널을 넘어 친근한 군민 소통 창구로 진화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더 군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크게 들으며 군



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군민의 해결사 '언제나 소통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소통폰으로

의견을 보내주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군정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중대재해 대응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신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주민과 소속기관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일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 중인 박남규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교육을 진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장별 직접 고용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소들을 점차 개선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청년정책 4개 분야 56개 사업 심의

영광군은 지난 2일 2024년 제1차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군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참여와 소통, 일자리창출,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56개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와 소통 분야로는 ▲청년진용예산제 운영 ▲청년단체 소통간담회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별이 빛나는 밤 '군민과 함께'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분야는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 ▲청년창업 공유공간 조성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취업활동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이 진행된다.

청년문화·복지 분야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거점별 작은 미술관 운영 등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올해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장보기 행사 실시

### 김산 군수, 방문객·상인들 의견 청취·격려

무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일까지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명절맞이 전 직원 장보기 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지난 4일 설 대목장을 맞은 무안전통시장을, 6일은 일로전통시장과 남악·오룡시장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역특산품과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또한, 설 명절 장보기 행사와 함께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산 군수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품질 좋은 먹거리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부담을 덜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나비 날갯짓 준비 한창

함평군이 함평나비대축제 주역인 봄의 전령사 나비 사육에 한창이다.

5일 군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동안 개최되는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에 올해의 대표 나비로 선정된 산호랑나비를 비롯해 17종 20여만 마리의 나비가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기간에 방사·연출되는 나비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먹이식물 온실, 실내 온·습도 시설

등을 활용, 해마다 축제 일정에 맞춰 아름답고 다양한 나비들을 선보인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평은 나비의 고장이자 나비는 우리 지역문화의 자랑이다. 이상기후와 나비 서식지 감소로 갈수록 나비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다양한 기술 시도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나비의 아름다운 날갯짓 아래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득 안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 6일,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

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목포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된 5개 품목(가리비·방어·우렁쉥이·부세·전복)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